

나는 나의 나라에 있는 행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나라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미역은 혈액 순환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나의 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입니다. 외국은 0살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기가 얼마 배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10달간 0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1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친척들과 잔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무서운 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100일 전에 죽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살면 축하해 줍니다. 기념 사진도 찍습니다.

아기의 첫번째(처음) 생일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실이나 연필이나 돈을 놓고 아기에게 고르게 합니다. 아기가 책이나 연필을 고르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실을 잡으면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기가 장래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생일에 미역국을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요즈음은 케익을 먹거나 친구들과 술을 먹거나 놀입니다. 아이의 100日 1年(돌잔치)도 자주 생략합니다.

현대에는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간편한 생일 잔치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친척이 모이는 생일잔치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척을 만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해주기 때문에, 더욱 기쁘게 됩니다.